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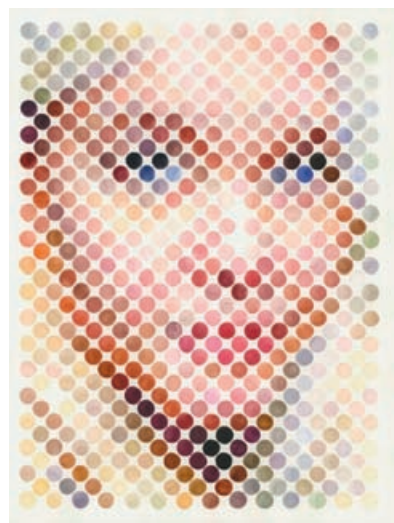


창작의 기초, 조형 요소와 원리

- 조형 요소와 원리의 종류와 특징을 탐색할 수 있다.
- 조형 요소와 원리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색 야콥(Jácome, Marcelo/1980~/브라질) 플라노스-피파스(Planos-pipas) n17(티슈페이퍼, 면사, 대나무, 유리 섬유, PVA 접착제/가변 크기, 약 550x2300x800cm/2013년/런던 사치갤러리)

조형은 흔히 언어에 비유된다. 언어는 낱말들의 배열과 문맥에 따라 평범한 글이 되기도 하고 예술성을 지닌 시가 되기도 한다. 조형이란 오브제를 가공, 성형하여 시각적으로 형태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며, 점, 선, 면, 형을 사용한 창조적 표현 활동을 의미한다. 조형의 예술성은 조형 요소의 구성, 시각적 배치,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 얻어진다.



점 마니르(Manire, Nathan/미국) 엘렌(종이에 수채 물감/76.2x55.9cm/2013년)



선 말레바(Malerba, Frank/1950~/오스트레일리아) 본다이 패션 액세서리(강철, 아크릴 판/높이 180cm/2007년)



면 우드(Wood, Jonas/1977~/미국) 무제-최후의 용사(캔버스에 유채 물감/91.7x61.3cm/2010년)



양감 모우바이안(牟柏岩/1976~/중국) 힘내!(청동에 채색/55x45x42cm/2013년)

조형 요소

조형 요소란 점, 선, 면과 같이 조형을 이루는 요소를 가리킨다.

점(point) 점은 표현의 최소 단위로, 점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감정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하나의 점은 그 자체로 완성된 작품이 되기도 하고 선과 면을 형성하기도 한다.

선(line) 선은 사물의 외곽을 구성하여 윤곽을 나타낸다. 선은 그 종류와 두께, 속도감 등에 따라 움직임과 방향성을 가진다. 또한 선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와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면(plane) 2차원의 넓이를 가진 면은 선의 움직임에 따라 폭이 확대되면서 형성되며, 회화를 구성하고 입체를 이루는 기본 요소로 양감이나 공간의 깊이를 암시한다.

형(shape) 형이란 선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사물의 생김새나 모양, 형상, 윤곽 등을 말한다.

색(color) 색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의 파장이며 사물의 시각적 특성을 구별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양감(volume) 덩어리의 느낌으로, 물체의 부피나 무게에 대한 감각 또는 입체적 감각을 말한다. 평면에서는 형, 명암, 색채 등을 통해 양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형 로랑스(Laurens, Henri/1885~1954/프랑스) 어린 소녀의 머리(석회석/39.3x17.4x12.5cm/1920년)

공간(space) 평면에서는 주제 이미지와 배경이 만들어 내는 환영적 공간이 있고, 입체에서는 작품이 차지하는 공간과 작품을 둘러싼 주변의 공간이 있다.

질감(texture) 작품의 표면이 ‘부드럽다’, ‘거칠다’와 같은 느낌을 말하며,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질감과 손으로 느끼는 촉각적 질감이 있다. 재질감은 나무, 솜, 유리 등 작품의 재료에서 느껴지는 질감이다.

원근감(perspective) 원근감은 화면상에서 느껴지는 멀고 가까운 거리감과 공간감을 말한다. 원근감은 대상의 중첩, 투시화법, 색채 원근법 등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공간 세라(Serra, Richard/1938~/미국) 시간의 문제(강철/가변 크기, 높이 4,300cm 조각 8개/1994~2005년/구겐하임빌바오미술관)



질감 스파르나이(Sparnaay, Tjalf/1954~/네덜란드) 버룩시장의 우유 따르는 여인(리넨에 유채 물감/129.54×107.31cm/2013년)



질감 피카소(Picasso, Pablo/1881~1973/에스파냐) 잡지 『미노타우로스(Minotaure)』 표지를 위한 작품(나무에 목탄, 골판지, 포일, 리본, 종이 냅킨, 인공 식물, 압정, 인쇄 용지, 연필/48.5×41cm/1933년)



원근감(색채 원근법) 프리드리히(Friedrich, Caspar David/1774~1840/독일)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캔버스에 유채 물감/94.8×74.8cm/18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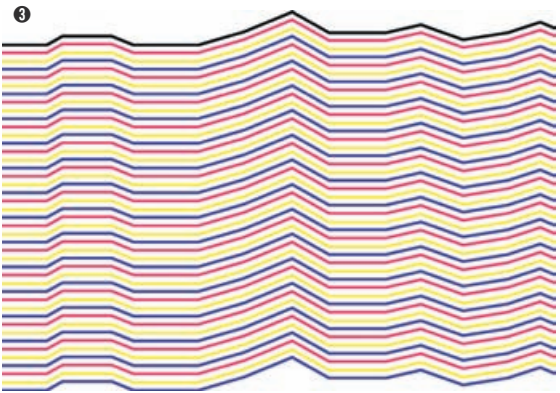
조형 원리

모든 예술 작품은 조형의 요소들이 서로 작용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조직된 것이다. 이와 같이 조형 요소의 유기적인 관계와 시각적 법칙을 조형 원리라고 한다.

통일성(unity) 통일은 비슷한 형과 색이 화면에 하나로 조직되는 것을 말한다. 통일성의 핵심은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이라는 데 있다. 통일성이 너무 지나치면 지루해지기 쉬우므로, 통일성은 적절한 변화를 동반하여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변화(variation) 변화는 통일된 구성을 부분적으로 다르게 배치하는 것으로, 다양함과 생동감을 준다. 지나친 변화는 산만하고 복잡해 보일 수 있으므로 통일의 요소가 적절히 조화되는 것이 좋다.

통일성과 변화 방은겸(1975~/한국) 그들과 우리들(캔버스에 연필, 아크릴 물감/72×60cm/2008년)



① 균형 론디노네(Rondinone, Ugo/1964~/스위스) 초록, 노랑, 주황, 빨강, 분홍 산 (돌과 강철에 채색/높이 182cm(좌대 제외)/2015년)
② 비례 작고 연약한 풍선 인형의 크기와 재질을 바꾸어 압도감을 준다. 쿤스(Koons, Jeff/1955~/미국) 풍선 강아지-빨강 (크롬 도금한 스테인리스 스틸에 투명 컬러 코팅/307.3×363.2×114.3cm/1994~2000년)
③ 율동 르윗(LeWitt, Sol/ 1928~2007/미국) 벽 드로잉 797(벽에 마커/가변 크기/1995년)



동세 퀴ン(Quinn, Lorenzo/1966~/이탈리아) 자연의 힘 II (청동, 스테인리스 스틸, 철/185×421×70cm/2011년)
강조 방리준(方力鈞/1963~/중국) 2003-사면화(캔버스에 유채 물감/각 400×175cm/2003년)